



# “만능 엔터테이너 필기 앱” 원노트 활용 가이드

디지털 필기 앱은 한 서비스를 오랫동안 사용할수록 새로운 대안이나 유망한 경쟁 제품으로 갈아타기가 어렵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만큼 맨 처음 어떤 서비스를 선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윈도우 운영체제를 발표한 데 이어 데이터 업로드, 액세스, 보관 등에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마이크로소프트 원노트를 집중 분석했다. 나만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고급 팁부터 원노트만 할 수 있는 기능, 함께 쓰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관련 프로그램까지 살펴본다. 중요한 기능을 손에 익혀두면 투자한 이상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OneNote**

- ※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원노트 정리 방법 10가지
- ※ “함께 쓰면 더 유용한” 원노트 추가 기능과 도구
- ※ 원노트만 할 수 있는 7가지 알짜 기능
- ※ 윈도우 잉크로 원노트 매스, 리플레이 기능 활용하기
- ※ 오늘 날짜를 원노트 페이지 제목으로 사용하는 간단한 방법
- ※ “강의 녹음할 때 필수!” 원노트, 필기 연계 녹음 기능 자세히 알아보기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본 PDF 문서는 IDG Korea의 프리미엄 회원에게 제공하는 문서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IDG Korea의 허락 없이 PDF 문서를 온라인 사이트 등에 무단 게재, 전재하거나 유포할 수 없습니다.

#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원노트 정리 방법 10가지

Lincoln Spector | PC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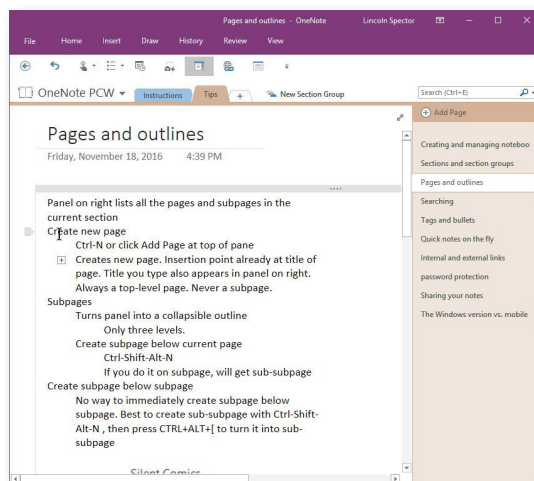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은 생산성 도구인 원노트는 스프레드시트나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에는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노트나 정보를 기록하고 정리해 둘 수 있는 놀랍도록 다재다능한 도구다. 다만 잡동사니 보관함으로 변질하지 않으려면 페이지와 개요, 섹션, 섹션 그룹, 전자 필기장으로 구성된 특유의 계층을 잘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 사항을 먼저 둘러보고, 추가로 더 유용한 기능도 살펴보자.

우선 데스크톱용 오피스, 오피스 365를 모두 아우르는 원노트 2016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과거 오피스 버전에서는 아래 설명된 명령어나 기능이 약간 다를 수 있다. 윈도우 10에 포함된 무료 버전은 기능이 조금 제한돼 있다.

## 계층 1: 페이지와 개요

원노트를 실행하면 넓은 흰색 공간이 펼쳐진다. 이것이 페이지다. 맨 위의 필드에 페이지 이름을 지정해야 한다.

페이지에는 무엇이든 입력할 수 있다. 단을 나눠 접을 수 있는 개요 서식도 만들 수 있다. 정보를 입력한 다음 엔터 키를 누르면 새 단락이 생성된다. 입력하기 전에 Tab 키를 누르면 새 단락이 그 위 단락에 종속된다. Tab 키나 Shift+Tab



단락과 종속 단락을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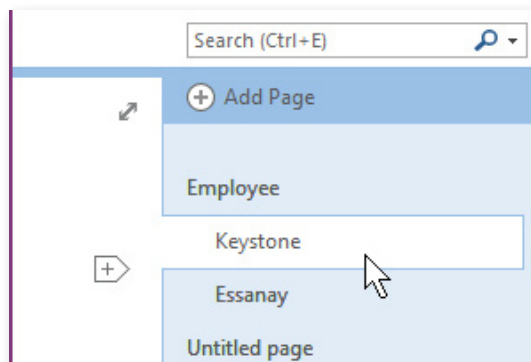
키를 눌러 개요의 단락 상태를 조정할 수 있다.

마우스 커서로 개요의 최상위 단락을 가리키면 회색 태그 아이콘이 표시된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단락과 그 단락에 종속된 단락이 선택된다. 태그 아이콘을 두 번 클릭하면 종속 단락이 접힌다. 상자 안의 더하기 기호 비슷하게 생긴 글머리 아이콘은 단락에 숨겨진 종속 단락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것이 단일 페이지 내의 계층이다. 물론 여러 페이지의 계층을 만들 수도 있다. 페이지는 오른쪽 창에 목록으로 나열된다.

새 페이지를 생성하려면 Ctrl+N 키를 누른다. Ctrl+Shift+Alt+N 키를 누르면 바로 위 페이지에 종속되는 하위 페이지가 생성된다. Ctrl+Alt+[와 Ctrl+Alt+]를 누르면 페이지를 승격하거나 강등할 수 있다.

또, 페이지 이름 오른쪽의 작은 V자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 페이지 개요를 접을 수 있다. 모든 형태의 페이지를 드래그 앤드 드롭 방식으로 위아래로 옮길 수도 있다. 그러나 옮기기 전에 페이지의 하위 페이지를 접어야 한다. 접지 않은 상태에서 페이지를 드래그하면 하위 페이지가 함께 이동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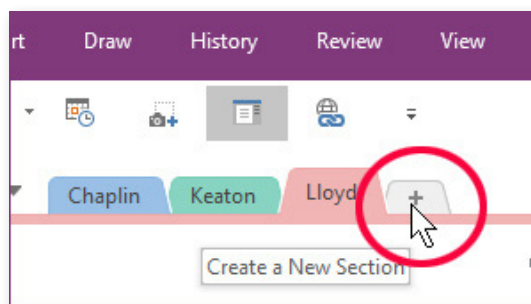


하위 페이지를 접어 페이지 개요를 생성한다.

### 계층 2: 섹션과 섹션 그룹

모든 페이지는 특정 섹션에 속한다. 원노트 창에서 맨 위의 탭을 클릭하면 다른 섹션으로 변경할 수 있다.

새 섹션을 만들려면 섹션 행 끝의 '+' 탭을 클릭한 다음 이름을 입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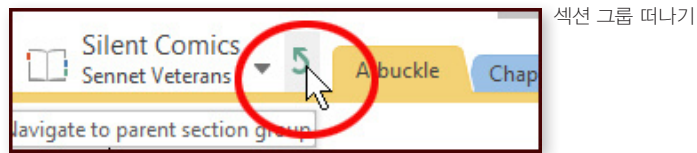


새로운 섹션 만들기

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이름 바꾸기, 삭제 등의 옵션이 표시되며 탭의 색도 변경할 수 있다.

또, 드래그 앤드 드롭으로 섹션의 순서를 바꿔 배치할 수 있다.

섹션이 원노트 전자 필기장에서 가장 높은 범주인 것은 아니다. 여러 섹션을 묶어 하나의 섹션 그룹을 만들 수도 있다. 섹션 그룹을 만들려면 아무 섹션이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새 섹션 그룹을 선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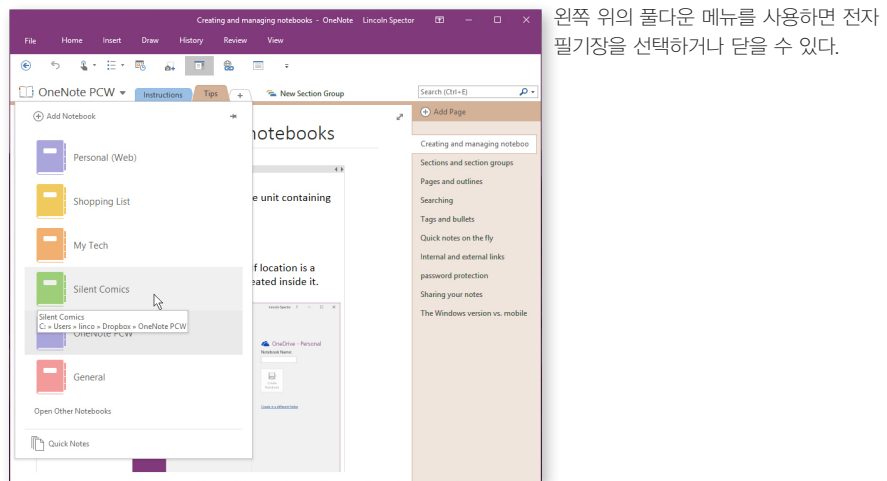
섹션을 섹션 그룹으로 드래그할 수 있다. 섹션 그룹을 클릭해서 섹션 그룹으로 들어가고, 그룹에서 나가려면 섹션 왼쪽의 굵은 화살표 아이콘을 클릭하면 된다.

### 계층 3: 전자 필기장 생성 및 관리

기본 전자 필기장 외에 다른 필기장을 만들면 한층 더 체계적으로 정보를 정리할 수 있다.

전자 필기장을 만드는 방법은 워드 문서나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만드는 과정과 거의 동일하다. 파일 > 새로 만들기를 선택한 후 원하는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한 가지 흥미로운 차이점은 원노트 전자 필기장은 파일이 아니라 여러 파일이 포함된 폴더라는 점이다.

원노트 무료 버전에서는 로컬 드라이브에 전자 필기장을 생성하거나 사용할 수 없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원 드라이브 클라우드 서비스에 저장해야 한다. 오피스에 포함된 버전에서는 위치에 관계없이 전자 필기장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동시에 여러 개의 전자 필기장을 열어둘 수 있다. 원노트 창의 왼쪽 위, 섹션 왼쪽에 현재 전자 필기장 이름이 표시된다. 이 이름을 클릭하면 열려 있는 모든 전자 필기장의 풀다운 메뉴가 표시된다.

다른 전자 필기장을 사용해서 불러오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해서 이 전자 필기장 단기를 선택할 수 있다. 메뉴에는 그 외의 다른 옵션도 있다.

### 정보 검색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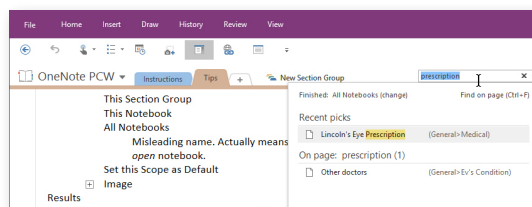
데이터를 아무리 잘 정리한다 해도 무엇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마련이다. 그럴 때는 검색 기능을 활용하자.

원노트 검색 필드는 오른쪽 위의 페이지 창 바로 위에 있다.

검색어를 입력하기 전에 원노트가 검색할 위치를 지정해야 한다. 검색 풀다운 메뉴를 열면 관련 옵션이 표시된다. 기본 옵션은 모든 전자 필기장이지만 이 명칭에는 혼동의 여지가 있다. 실제로는 모든 열려 있는 전자 필기장을 의미한다. 닫힌 전자 필기장에서는 검색할 수 없다.

검색 범위를 좁히려면 현재 섹션, 섹션 그룹 또는 전자 필기장만 보도록 지정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원하는 위치를 자유롭게 기본값으로 설정할 수 있다.

입력을 시작하면 즉시 검색 결과가 새 창에 표시된다. 원하는 페이지를 찾은 후 선택한다.



검색어 입력을 시작하는 즉시 새 창에 검색 결과가 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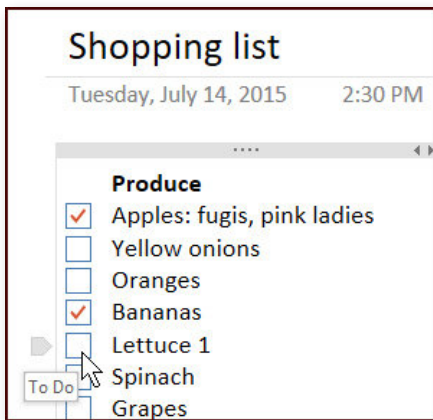
페이지를 열었는데 검색 텍스트를 찾을 수 없다면 Ctrl+F를 누른다. 원하는 문자열이 나오는 부분이 모두 강조 표시된다. 검색 필드 옆의 깃발은 페이지에서 검색 문자열이 몇 번 나오는지 알려준다.

### 태그, 확인 표시, 번호, 글머리 기호

원노트에는 페이지를 쇼핑 목록이나 할 일 목록으로 변환할 수 있는 확인 표시가 있다. 원노트에서는 이것을 ‘할 일 태그’라고 한다.

할 일 목록을 만들려면 리본 메뉴 홈으로 가서 할 일을 선택한다. 현재 단락의 시작 부분에 확인란 글머리 기호가 표시된다. 텍스트를 입력하고 엔터 키를 누르면 새 단락의 시작 부분에 확인란이 나타난다.

물론 기존 단락 그룹을 선택하고 할 일을 클릭해서 선택 항목 전체에 확인란을 추가할 수도 있다.



확인 태그를 사용하면 마친 일에 완료 표시를 할 수 있다.

확인란을 클릭하거나 두드리면 확인란 안에 확인 표시가 나타난다. 다시 클릭하면 확인 표시가 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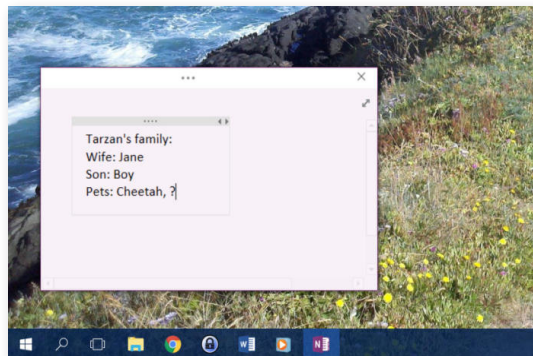
홈 리본의 태그 섹션에서 다른 여러 태그를 사용해 알아보기 쉽도록 원하는 부분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이디어 노트에 전구 모양을 사용하면 쉽게 알아볼 수 있다.

홈 리본에는 워드에서 익숙한 글머리 기호와 번호 매기기 옵션도 있다.

### 즉석 빠른 노트

전화번호나 아이디어 등 뭔가를 빨리 적어야 하는데, 워드 프로세서를 열어야 할지, 이메일 클라이언트를 열어야 할지, 연필과 종이를 꺼내야 할지 얼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PC에 원노트가 설치된 경우 이럴 때 윈도우 키+N을 누르면 작은 창이 뜬다. 이 창에 뭐든 입력할 수 있다. 이 기능은 원노트가 실행 중이 아니어도 작동한다.



다 적으면 작은 창을 닫는다. 저장하거나 이름을 지정할 필요는 없고, 위에 설명한 검색 기능을 통해 언제든지 불러오면 된다.

그래도 노트가 어디에 저장되는지 알아둬야 할 때가 있다.

세 번째 탭에 설명된 전자 필기장 메뉴를 펼치면 맨 아래에서 빠른 노트라는 옵션을 찾을 수 있다. 이 옵션을 선택하면 개인(웹) 전자 필기장(원노트의 기본 전자 필기장)에 통합 노트 섹션이 열린다. 최근 빠른 노트는 이 섹션의 마지막 페이지에 있다.

물론 드래그 앤드 드롭으로도 노트의 위치를 옮길 수 있다. 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이동이나 복사를 선택하거나 Ctrl+Alt+M 키를 눌러서 페이지 복사 대화 상자를 통해 페이지를 옮길 수 있다.

### 내부 및 외부 링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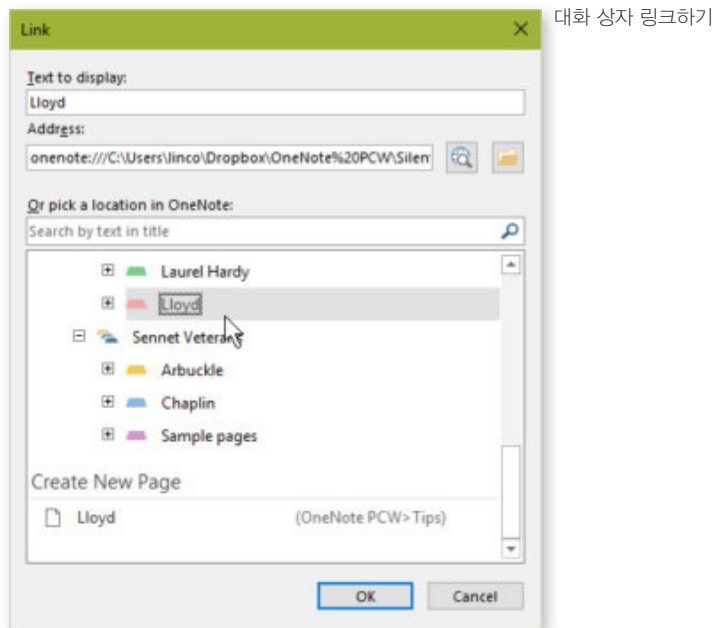
링크가 무엇인지는 누구나 안다. 클릭하면 다른 웹 페이지가 뜨는 위치 주소다. 여느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원노트에도 웹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넣을 수 있다.

또 전자 필기장의 다른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나 다른 전자 필기장의 다른 페이지 링크도 추가할 수 있다.

현재 전자 필기장의 다른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넣는 빠르고 간단한 방법은 링크를 넣을 페이지에서 페이지 제목을 입력하고 제목을 이중 대괄호로 묶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성 영화 스타에 대한 Harold Lloyd라는 페이지가 있다면 [[Harold Lloyd]]라고 입력해서 링크할 수 있다. 두 번째 ]를 입력하는 즉시 괄호가 사라지고 이름이 링크가 된다.

이 방법은 여러 개의 전자 필기장을 오갈 때는 통하지 않으므로 더 유연한 옵션이 따로 있다. 원하는 링크 텍스트를 선택한 다음 Ctrl+K를 누르거나 선택한 텍스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링크를 선택한다. 링크 대화 상자가 열리면 여기서 페이지를 찾거나 원노트 섹션의 위치를 선택할 수 있다.

PC의 파일도 링크할 수 있다. 텍스트를 선택하고 위의 설명에 따라 링크 대화 상자를 불러온 다음 폴더 아이콘을 클릭하고 파일을 찾으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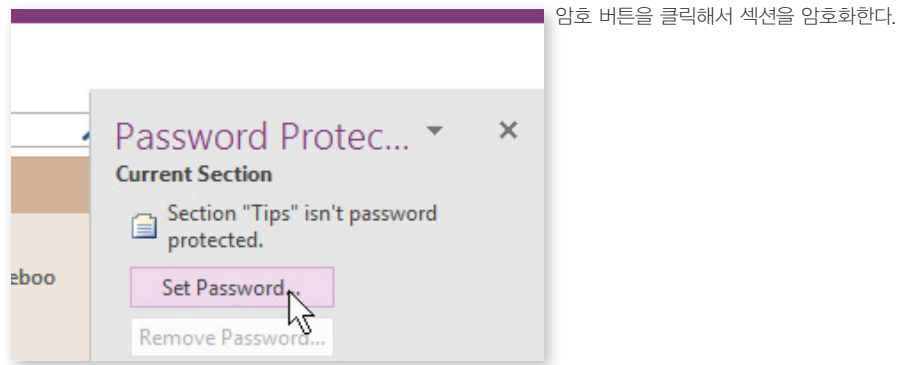


### 암호화

128bit AES 암호화를 사용해 암호로 원노트 섹션을 보호할 수 있다(전자 필기장, 섹션 그룹 또는 페이지는 안 되고 섹션만 가능).

섹션의 탭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이 섹션을 암호로 보호’ 항목을 선택한다. 암호 설정을 클릭하고 암호를 입력한다.

모든 암호가 그렇듯 길고 강력하고 복잡하면서도 기억할 수 있는 암호를 사용해야 한다. 암호를 잊으면 해당 섹션의 모든 내용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또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 암호를 사용해서 보호되는 섹션을 열면 한동안 열린 상태로 유지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길면 Ctrl+Alt+L을 눌러서 암호로 보호되는 모든 섹션을 수동으로 잠그는 방법을 쓰자.
- 섹션의 보호가 해제된 경우가 아니면 암호로 보호되는 콘텐츠는 검색에서 읽히지 않는다.
- 일부 기기(필자의 안드로이드 폰 포함)에서는 암호를 입력해도 보호되는 콘텐츠를 열지 못할 수 있다.

전체 전자 필기장을 암호화하고 싶다면 별도의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 드라이브를 암호화하는 방법도 있다.

### 노트 공유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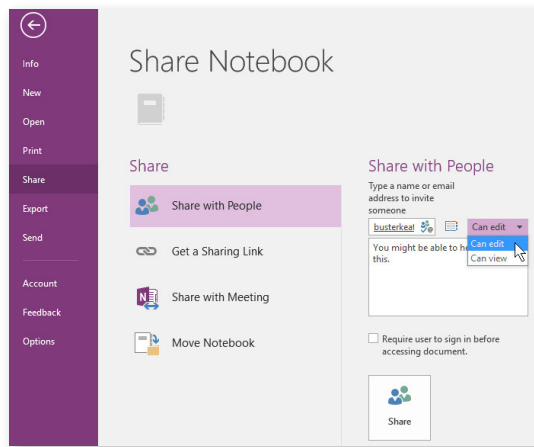
전자 필기장을 회사 동료나 가족과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원드라이브에 전자 필기장을 저장해야 한다.

전자 필기장을 공유하려면 파일 > 공유를 선택한 다음 다른 사용자와 공유를 클릭한다. ‘이름이나 전자 메일 주소 입력’ 필드에 전자 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편집 가능 또는 보기 가능’ 항목을 선택하고 메시지를 입력한다. 보안을 강화하려면 ‘사용자가 로그인해야 문서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확인란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모두 마치면 공유를 클릭한다.

수신인은 정보 공유를 초대하는 전자 메일을 받게 된다. 전자 메일에 포함된 큰 버튼을 누르면 내 전자 필기장의 웹 페이지를 방문할 수 있다. 즉, 원드라이브에 저장된 모든 전자 필기장은 일정한 보호 기능이 적용되어 웹에 존재한다. 수신인은 인터넷에 연결해 노트를 보고 작업할 수 있다. 페이지 옵션을 사용해 설치된 원노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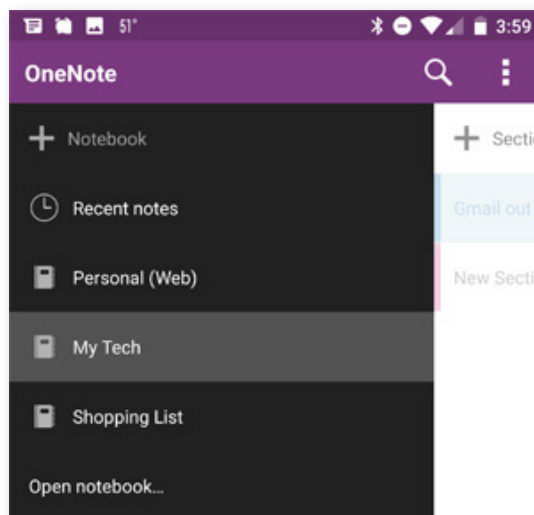


친구 또는 동료와 전자 필기장을 공유할 수 있다.

### 윈도우 버전과 모바일 앱

마이크로소프트는 안드로이드와 iOS용 무료 원노트 앱을 제공한다. 무료인 대신 이 앱은 원드라이브에 저장된 전자 필기장에만 접근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버전은 윈도우 버전과는 전혀 다른 모양이다. 예를 들어 전반적으로 세로 방향 중심이고, 앱의 시작 화면에는 사용 가능한 전자 필기장 목록이 표시된다. 하나를 두드리면 섹션 및 섹션 그룹 목록이 표시된다. 그중 하나를 두드리면 페이지가 열린다. 페이지를 두드리면 내용을 읽어볼 수 있다.



원노트 안드로이드 버전은 윈도우 버전과는 모양이 전혀 다르다.

모바일 앱에는 다른 제약도 있다. 다른 섹션이나 전자 필기장으로 페이지를 옮길 수 없고 섹션 내에서의 재배열도 불가능하다. 다만 안드로이드 홈 화면으로 페이지를 보내는 기능은 있다. 섹션의 페이지 목록에서 페이지를 탭한 다음 아래로 밀고 홈 화면에 추가(Add to Home screen)를 선택한다.

PC에서든 모바일 기기에서든 원노트는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생산성 도구다. 적절한 시간을 투자해 사용 방법을 손에 익히면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ITWORLD

# 원노트만 할 수 있는 7가지 알짜 기능

James A. Martin | CIO

**이**른바 “울타리 정원”이라고 불리는 디지털 라이프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가장 마음에 드는 자신만의 ‘정원’을 선택하는데, 그 정원에 시간과 돈을 투자할수록 떠나기는 더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많은 사람들이 잡다한 디지털 메모와 낙서, 문서 스캔본을 저장하기 위한 기본 저장소로 에버노트나 마이크로소프트 원노트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 두 가지를 번갈아 사용하거나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바꾸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하면 계속 그것만 사용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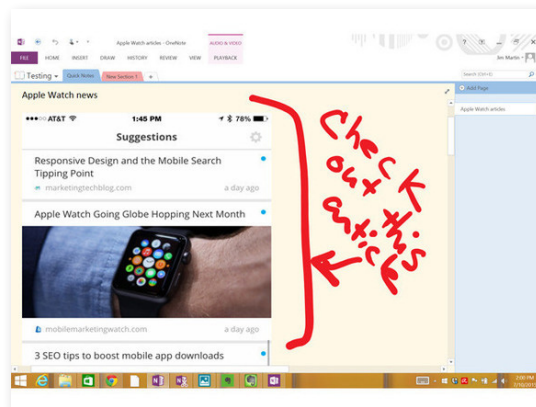
필자는 1년 전 원노트와 에버노트 중 에버노트를 선택해서 디지털 아카이브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당시 에버노트의 맥 소프트웨어는 원노트 맥 앱에 비해 훨씬 더 뛰어났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맥과 iOS용 원노트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한 결과 지금의 원노트는 에버노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쟁 프로그램으로 발전했다. 맥 에버노트와 맥 원노트 중 하나를 지금 결정하라면 예전처럼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다. 윈도우 사용자라면 선택은 더욱 힘들어진다. 원노트 2013 윈도우 데스크톱 앱에는 에버노트나 맥용 원노트에는 없는 유용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전자 필기장 도구 중 하나를 결정하려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에버노트에는 없는 원노트의 7가지 기능을 정리했다. 물론 전적으로 원노트의 관점에서 유리한 부분을 서술했다.

## 01 원노트는 디자인 친화적인 자유 형식 캔버스

각 원노트 노트는 빈 캔버스다. 모든 요소는 그 자체로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다. 스타일러스가 있다면 노트 내에 어디든 그릴 수 있고 수기, 텍스트 블록, 이미지 또는 기타 요소를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삽입할 수 있다.

윈도우용 원노트 2013에는 노트를 맞춤 설정하는 기능도 있다. 예를 들어 종이 색을 바꾸거나 줄이나 격자 선을 추가하고, 노트의 크기를 변경하고 새 페이지 템플릿을 만들거나 기존 템플릿을 적용하고 텍스트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다. 아이패드 및 맥 앱을 포함한 다른 원노트 버전은 이 기능 중 일부만 제공한다.



각각의 원노트 노트는 빈 캔버스고, 모든 요소는 그 자체로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다.

## 02 원노트 오피스 통합

윈도우용 원노트 2013은 마이크로소프트 아웃룩,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와 매끄럽게 연계해 작동한다. 단순히 노트에 파일을 첨부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를 들어 새로 만든 또는 기존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원노트 노트에 삽입할 수 있으며 편집한 내용은 해당 엑셀 파일과 원노트 페이지에 표시되는 스프레드시트에 자동으로 저장된다.

또한, 셰어포인트를 사용해서 조직 내에서 원노트 콘텐츠를 공유하고, 아웃룩 이메일 메시지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해서 특정 원노트 전자 필기장으로 보낼 수 있다. 맥용 원노트와 에버노트에는 모두 이러한 기능이 없지만 에버노트 엑셀 사용자 토론에 상세히 설명된 것처럼 해결책이 없지는 않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확인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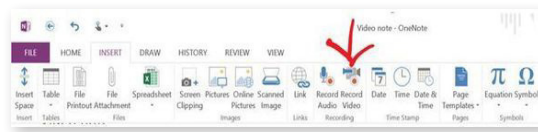
## 03 원노트 동시 협업

맥용, 윈도우용 원노트에서는 무료로 다른 원노트 사용자와 노트 및 전자 필기장을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조직에서 원노트를 통한 문서 공유를 위해 유료로 셰어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또는 원노트를 유료 오피스 365 구독에 포함시켜 사용하는 경우 엄격한 의미의 “무료”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공유 원노트 페이지에 내용을 입력하거나 콘텐츠를 추가하면 협업 참가자들은 거의 실시간으로 편집 내용을 볼 수 있다. 에버노트는 협업 참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작업 채팅” 기능을 제공하지만 동시 노트 편집 협업은 지원하지 않는다.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나온 것이 클라우드 서비스 라이브미닛(LiveMinutes)이다. 무료로 이용할 경우 최대 10개의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다. 유료 플랜에서는 월 9달러를 내고 추가 프로젝트를 생성하거나(프로젝트 무제한) 월 39달러를 내고 최대 5명의 사용자가 무제한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다.

## 04 비디오 레코딩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 프로 3 등의 윈도우 태블릿을 들고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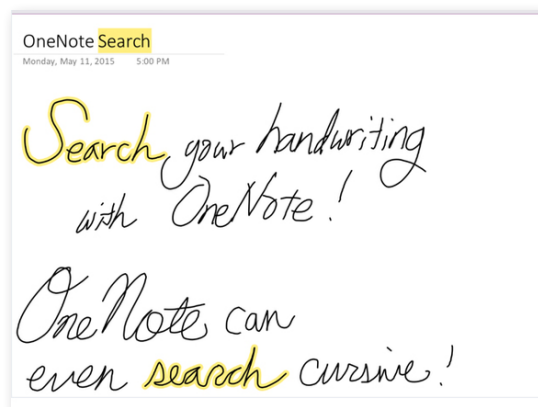


윈도우용 원노트 2013에는 에버노트 또는 맥용 원노트에는 없는 멋진 기능, 바로 노트에 새 비디오 레코딩을 추가하는 기능이 있다.

를 구경하다가 간편히 제품 데모를 녹화하고 관련된 내용을 필기한 내용을 팀과 공유할 수 있다. 에버노트와 맥용 원노트에서는 노트에 오디오 주석을 추가할 수 있지만 비디오는 추가할 수 없다.

## 05 디지털 펜 지원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8을 출시한 이후 터치스크린 입력 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서피스 태블릿용으로 설계된 서피스 펜을 보면 알 수 있듯 스타일러스 입력력에도 관심이 많다. 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손으로 필기하거나 원을 그리거나 기타 노트에 주석을 다는 용도로는 원노트가 가장 적합하다. 애플 노트북과 데스크톱은 터치스크린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스타일러스를 지원하지 않는다.



수기가 웬만큼 읽을 수 있는 정도만 된다면 원노트는 광학 문자 인식(OCR)을 사용해 수기 노트를 검색 가능한 키워드로 변환해주는 기능도 제공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노트에서 바로 필기를 시작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을 고안했다. 기본적으로 서피스 펜의 위쪽 버튼을 한 번만 두드리면 원노트 윈도우 앱이 실행되는데, 이 기본 동작을 변경해서 원노트 2013 윈도우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수기가 웬만큼 읽을 수 있는 정도만 된다면 원노트는 광학 문자 인식(OCR)을 사용해 수기 노트를 검색 가능한 키워드로 변환해주는 기능도 제공한다. 에버노트는 에버노트 또는 스캐너블(Scannable) 앱을 사용해 스캔한 종이 또는 화이트 보드의 수기를 OCR로 읽을 수 있다.

## 06 원노트 노트용 할 일 목록

원노트 페이지에는 포스트잇 스타일의 다양한 요소를 추가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를 태그라고 하는데, 기본 옵션도 꽤 풍부하다. 예를 들어 “나중에 할 일”,

“아이디어”, “방문할 웹사이트”, “볼 영화”, “블로그 내용” 등이 있으며 직접 만들 수도 있다.

태그를 사용하면 원노트 노트를 손쉽게 정리할 수 있는데, 특히 “할 일” 태그가 상당히 유용하다. 이 태그를 사용하면 노트에 할 일 체크리스트를 추가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전시회에서의 비디오 녹화를 예로 들면 노트에 ‘해당 상품을 시연한 사람에게 연락할 것’ 또는 ‘경쟁 제품을 알아볼 것’ 등의 할 일 목록을 추가할 수 있다.

## 07 훨씬 더 많은 무료 저장 공간 제공

에버노트와 비교할 때 원노트의 또 다른 장점은 무료 버전에서도 많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노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원드라이브를 통해 제공되는 15GB의 무료 저장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오피스 365 가입자 및 엔터프라이즈 사용자에게는 더 많은 공간이 제공된다. 반면, 에버노트 무료 버전은 월 60MB의 데이터 저장 공간만 제공하며 무제한 저장 공간을 위해서는 연 50달러의 프리미엄 플랜에 가입해야 한다. 즉, 무료 플랜에서는 에버노트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금방 저장 공간 제한에 도달하게 된다. **ITWORLD**

# ITWORLD

테크놀로지 및 비즈니스 의사 결정을 위한 최적의 미디어 파트너



## 기업 IT 책임자를 위한 글로벌 IT 트렌드와 깊이 있는 정보

ITWorld의 주 독자층인 기업 IT 책임자들이 원하는 정보는 보다 효과적으로 IT 환경을 구축하고 IT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입니다.

ITWorld는 단편적인 뉴스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과 실제 사용자들의 평가를 기반으로 한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설문조사와 사례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무에 활용할 수 있고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 내용과 형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IDG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된 방대한 정보와 전세계 IT 리더들의 경험 및 의견을 통해 글로벌 IT의 표준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윈도우 잉크로 원노트 매스, 리플레이 기능 활용하기

By Mark Hachman | PC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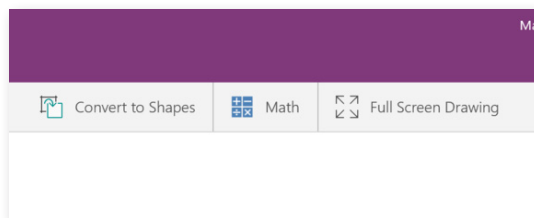
윈도우 10의 1주년 업데이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능 중 하나는 펜 컴퓨팅, 즉 윈도우 잉크다. 최근 윈도우 10의 원노트 UWP 앱 내에 있는 매스(Math) 및 리플레이 기능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윈도우 잉크 기능을 탐구했다.

매스는 잉크로 쓴 방정식을 해석하고 푸는 기능이고, 리플레이는 사용자의 잉크 스트로크를 기록했다가 다시 한 번 재현할 수 있는 기능이다. 두 가지 모두 아이디어는 훌륭하다. 문제는 세부적인 구현인데, 두 기능의 단점을 보면 윈도우 잉크가 필기 인식과 데이터 랭글링이라는 현실의 벽에 어떻게 가로막혀 있는지 알 수 있다.

## 원노트 매스: 미완의 기능

오피스 365 가입자를 위한 마이크로소프트의 8월 업데이트에 따라 원노트에 방정식 계산이라는 강력한 기능이 추가됐다. 그러나 이 기능의 중대한 약점은 바로 잉크 인식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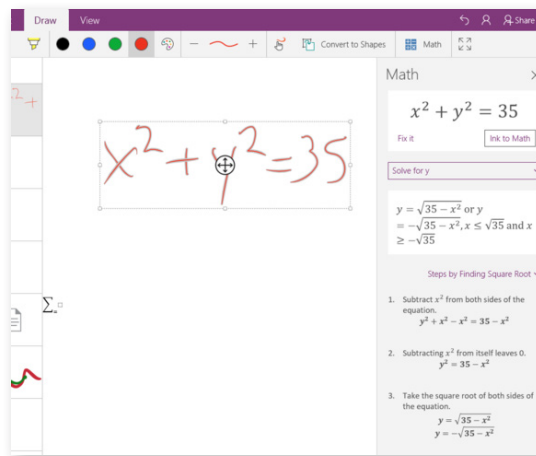
제대로 작동할 경우 원노트의 새로운 매스 기능은 전자 잉크를 방정식으로 변환한 다음 풀고, 그 과정까지 보여준다. 수학의 강자인 울프램 알파(Wolfram Alpha)를 연상시킨다. 울프램 알파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와 마찬가지로 이 기능을 유료로 제공한다.



원노트 매스를 사용하려면 방정식을 잉크로 써서 올가미 도구로 선택한 다음 매스 버튼을 클릭한다.

새로운 매스 기능은 그리기 탭 도구 모음에 있다. 방정식을 쓰고, 도구 모음의 왼쪽 끝에 있는 올가미 도구로 선택한 다음 매스 버튼을 클릭한다. 그러면 원노트가 잉크를 해석하고 방정식을 풀기 위한 옵션 목록을 표시한다.

스크린샷을 보면 풀이 과정과 해를 잘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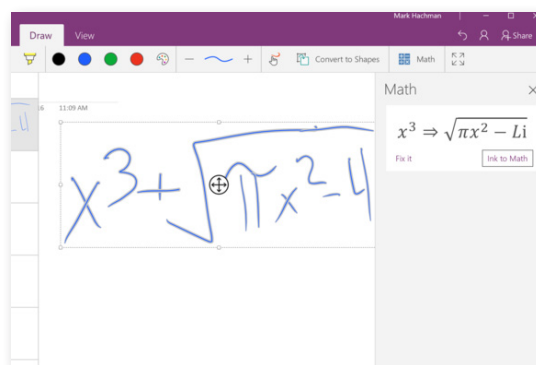


원노트의 매스 기능은 제대로 작동할 경우 아주 훌륭하다.

그러나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단일 방정식은 곧잘 푸는데, 일련의 1차 방정식은 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예를 들어 두 개의 변수가 있는 두 개의 방정식). 또한, 이 버전의 소프트웨어에는 그래프 작성 기능이 없고, 올프램 알파와 같은 사이트에서 지원하는, 고차원적 수학 함수도 상당수가 빠져 있어 아쉽다.

또 한 가지, 원노트는 사용자의 디지털 잉크를 해석할 때 몹시 까다롭다. 방정식을 입력할 때마다 잉크를 하고 원을 그린 다음 어느 정도 운에 맡겨야 한다. 숫자 ‘4’를 필자처럼 위가 열린 형태로 쓰면 제대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다. ‘+’ 기호를 정렬을 벗어나서 쓰거나 코탄젠트(“cot”) 약어를 완벽하게 잉크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필자의 경우 적분 기호를 인식할 때 상당히 애를 먹었다. 또 해석된 잉크가 표시되는 상자 일부가 흐릿한 버그도 종종 발생했다. 이 버그가 발생하면 방정식이 정확하게 해석되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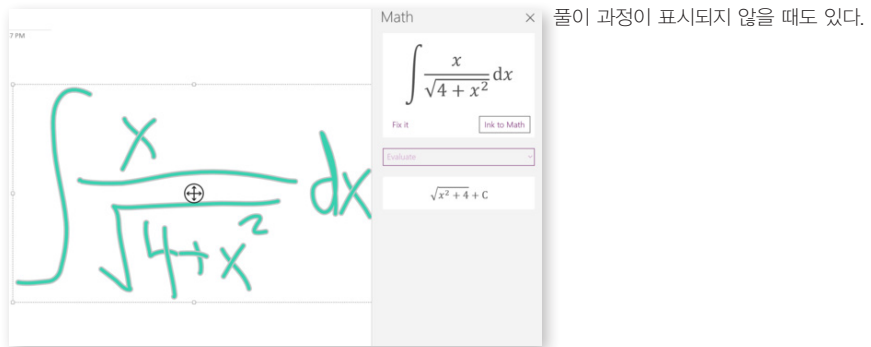


열악한 잉크 인식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노트 매스를 제대로 된 기능으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다.

또한, 서피스 북에서 스타일러스를 사용할 경우 손가락을 사용할 때보다 결과가 더 좋지 않았다. 손가락을 사용해 큰 기호를 잉크했기 때문일 수 있지만 무엇이 다른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또 다른 제약은 올가미 도구가 자동으로 화면 한계 밖까지 좌우로 확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정식이 이러한 한

도 내에 들어가도록 잉크해야 한다.

방정식을 부정확하게 입력하면(또는 원노트가 사용자의 잉크를 잘못 해석하면) 돌아가서 수정하기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특정 문자를 올가미로 잡아서 다시 쓸 수 있다. 그런 다음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전체 방정식을 다시 올가미로 묶고 다시 제출해야 한다.



공식이 정확하게 해석되면 원노트는 제대로 작동하면서 다양한 풀이 옵션이(예를 들어 x를 미분할지 또는 적분할지) 포함된 드롭다운 메뉴를 표시한다. 대부분의 경우 원노트는 그 답에 이르기까지의 단계를 표시하지만, 문제가 복잡할수록 풀이 단계가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도 커지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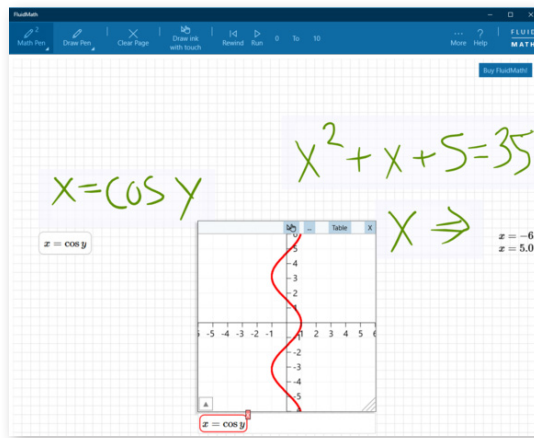
잉크 수식 변환 기능은 잉크로 쓴 방정식을 기본 창 내에서 텍스트 문자로 변환한다. 그러나 이렇게 변환된 문자는 편집할 수 없다. 잉크 수식 변환 기능의 궁극적인 목표는 잉크를 보다 전문적인 문서에 사용 가능한 무언가로 변환하는 것일 텐데, 현재로써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 원노트 매스의 또 다른 문제: 경쟁

기존의 경쟁 제품을 감안하면 원노트 매스 기능은 그다지 감동스럽지 않다. 고려할 만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1. **네보(Nebo)** - 잉크를 수학 방정식으로 변환하는 기능은 더 뛰어나지만 계산 범위는 원노트보다 더 제한적이다.
2. **울프램** - 유명한 매스메티카(Mathematica, 전문가용 앱으로 시작 가격이 250달러)의 울프램은 월 2.99달러에 울프램알파 윈도우 10 앱을 제공한다. 단계별 풀이가 포함되지만 공식 프로 버전 구독(월 5.49달러)에 포함된 다양한 기능 중 일부가 없다.
3. **플루이드매스(FluidMath) 윈도우 10 앱(연간 14.99달러)** - 원노트 매스가 지향해야 할 목표다. 플루이드매스는 디지털 잉크를 지원하며, 마찬가지로 까다롭긴 하지만 원노트에 비해서는 필기를 해석하는 능력이 더 우수하다. 네보와 마찬가지로 플루이드매스도 사용자가 잉크하는 동안 플루이드매스의 시각에서 “보이는 것”을 표시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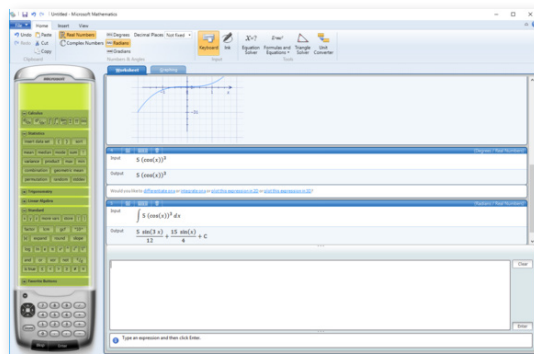




플루이드매스의 잉크 해석 역시 뛰어나지는 않지만 간편하고 비교적 사용하기 쉽다.

플루이드매스의 특징이 몇 가지 있다. 플루이드매스는 페이지의 모든 방정식을 인식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세 개의 변수를 사용해서 일련의 1차 방정식을 잉크할 수 있다. 해의 집합을 잉크로 표시하면 프로그램이 답을 채운다. 또는 방정식을 잉크한 다음 제스처를 사용해서 그래프로 그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플루이드매스의 진보적인 트라이얼 웨어 시스템이 마음에 든다. 사용해볼 수 있는 시간은 짧지만 (평가 기간이 만료되면 작업이 삭제됨) 다시 열어서 다른 방정식을 잉크할 수 있다.

4. 마지막으로 오래됐지만 믿음직한 마이크로소프트 매스매틱스(Mathematics)가 있다. 윈도우 7 시절에 만들어졌고 추억의 윈도우 CE 스타일 인터페이스를 갖춘 마이크로소프트 매스매틱스는 원노트 매스의 직접적인 경쟁 상대보다는 그래프 계산기에 가깝지만 윈도우 10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로소프트 매스매틱스는 다소 투박해 보이지만 생각 이상으로 유용하다. 오른쪽의 “비즈니스 계산기” 탭을 보면 결과가 세로로 쌓여서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스매틱스는 무료이며 극히 실용적이고 공통 방정식을 포함해서 풍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필자가 마이크로소프트 매스매틱스에서 활용하지 못한 거의 유일한 기능은 잉크였다. 어떤 이유인지 내장된 잉크 기능이 필자의 서피스 북 스타일러스를 인식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초기 버전의 원노트 매스를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생산적으로 작업이 가능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원노트 매스에 대해 나름의 생각이 있겠지만 현재는 잉크에 대한 의존이 원노트 매스의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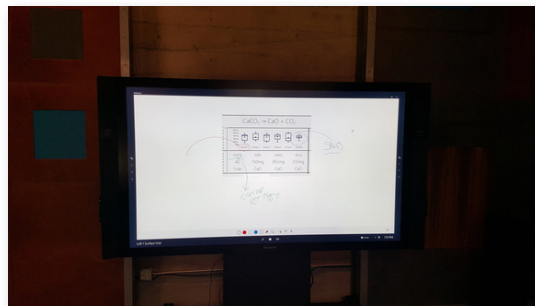
목을 잡고 있다.

### 원노트 리플레이 : 약속과 현실의 차이

내일 약속도 종종 잊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 달 약속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 원노트와 같은 메모 앱이 있는 것이다. 새로운 리플레이 기능을 사용하면 화이트보드에 기록한 시각적 아이디어의 뿌리도 되짚어 추적할 수 있다. 다만 이 개념은 아직은 다소 불완전하다.

리플레이는 이름처럼 한 명 이상의 사용자가 원노트 전자 필기장에 그린 디지털 잉크를 녹화해 기록하는 기능이다. 최종 결과물은 스틸 이미지로 구성된 일종의 스톱 모션이다. 아이디어가 개념 단계에서 현실화 단계로 진행되는 과정을 스크립 기능을 통해 고속으로 재생할 수 있다. 캡IQ(KappIQ)와 같은 디지털 화이트보드에서도 리플레이 기능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서피스 허브, 원노트가 선수를 쳤다.

그러나 원노트 리플레이 기능의 문제점은 마이크로소프트 생산성 앱 간의 인위적인 기능 분할이다. 리플레이(앞서 살펴본 새로운 매스 기능 역시 마찬가지)는 윈도우 10용 원노트 UWP 앱에 제공된다. 이 앱은 완성체 앱인 원노트 2016의 부분집합인데, 정작 원노트 2016에는 리플레이, 매스 기능이 없고 앞으로도 추가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스토어 앱 업데이트를 통해 리플레이를 받으려면 오피스 365에도 가입해야 한다.



이 서피스 허브는 현재 윈도우 잉크에 있는 스케치패드(Sketchpad) 앱을 사용하지만 원노트 UWP 앱도 실행할 수 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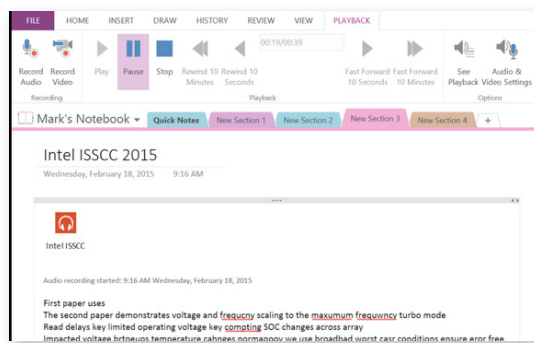
### 리플레이의 작동 방식

리플레이는 원노트의 보기 탭 안에 숨겨져 있다. 원노트 UWP 앱에는 터치스크린과 스타일러스가 필요하다. 마우스로 선을 그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 사용 시 앱은 서피스 북 또는 서피스 프로 4와 같은 태블릿에서 잘 작동한다. 필자에게는 테스트해볼 서피스 허브가 없었지만 대형 협업 화이트보드에서도 분명 아주 유용할 것이다.

원노트의 리플레이 내에서 드로잉을 시작하면 앱이 펜의 각 스트로크와 텍스트의 각 선을 캐시한다. 변경, 지우기 또는 조정 사항은 기록되지 않으므로 손으로 원을 그리고 원노트에서 이를 도형으로 변환하도록 하면 완성된 원만 기록

된다. 잉크를 수학 방정식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리플레이 버튼을 클릭하면 잉크와 텍스트가 마치 스톱 모션 영화처럼 약 0.5초당 스트로크 하나(또는 선 하나)의 속도로 재생된다. 바로 이 부분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

첫째, 시간 제약 문제가 있다. 리플레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잉크 스트로크를 본다는 것을 의미하며 스크립 기능을 사용해서 재생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스크립 기능은 여러 번의 시도를 거친 후에야 제대로 표시됐다. 리플레이 중에 일시 중지하고 잉크를 추가할 수 있는데 그 잉크는 리플레이가 완료될 때 남아 있게 된다.




현재 리플레이 기능은 더 강력한 버전인 원노트 2016에는 통합되지 않았다. 원노트 2016의 오디오 녹음 및 동기화 기능은 새로운 리플레이 기능과 잘 어울릴 것이다.

둘째, 되돌릴 수 없는 손실 문제가 있다. 리플레이는 추가된 잉크만 저장하며 사용자가 지운 노트는 영구적으로 사라진다. 이러한 삭제 방식은 보통 아이디어를 고안하는 방법, 즉 더하고 빼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방법과 맞지 않는다. 아무것도 지우지 않고 모든 요소를 보관할 경우 필기장이 지저분해질 위험이 있다.

여기에는 타협의 여지가 있다. 잉크를 더 선별적으로 저장하되, 되돌아가서 이전에 버렸던 아이디어를 다시 살려내는 기능을 넣는 것이다. 실생활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예를 들어 내년의 전략적 방향을 계획했다고 치자. 그런데 이후 예산이 줄어들어 부서가 더 수익성이 높은 부서와 통합됐다. 결과적으로 원래의 계획을 뜯어고쳐야 하지만, 반드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할 필요는 없다. 기존 코드 베이스를 복사해서 별개의 평행한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이른바 소프트웨어 “포킹(forking)”과 마찬가지다.

지금으로서는 최종 잉크의 일부를 선택한 다음 이를 페이지의 다른 부분 또는 새 원노트 페이지에 복사하는 방법 외엔 없고, 그나마 리플레이 기능이 실행 중인 동안에는 안 된다.

원노트의 새로운 리플레이 기능은 더 나은 무언가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시작 지점을 제공한다. 원노트의 동기화된 오디오 노트 필기 기능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강력한 도구다. 리플레이가 더 다듬어진다면 그와 비슷한 잠재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아직 막 구현된 윈도우 잉크는 실제적 유용성을 갖추기까지 개선할 부분이 많다.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더욱 기대되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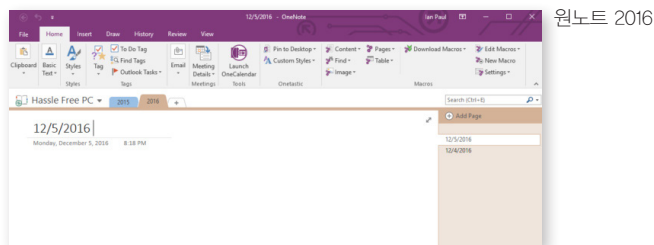
# 오늘 날짜를 원노트 페이지 제목으로 사용하는 간단한 방법

Ian Paul | PCWorld

**원**노트는 노트와 할 일 목록을 작성하고 일기를 쓰기에 좋은 도구다. 문제는 날짜를 제목이나 제목의 일부로 사용하고 이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편이 유용한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매년 날짜를 입력하면 된다지만 별로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 수동 모드, 즉 어려운 방법

먼저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은 키보드 단축키다. 원노트에서 평상시와 같이 새 페이지를 생성한 다음 제목을 입력할 차례가 되면 Alt+Shift+D를 누른다. 이 단축키는 원노트에서 현재 날짜를 입력하는 단축키다. 시간도 포함하려면 Alt+Shift+F를 누르면 된다.



그러나 원노트는 기본적으로 가장 최근 노트를 페이지 목록의 제일 아래에 배치하며 이를 바꾸는 설정도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이드바의 페이지 제목을 클릭하고 맨 뒤로 드래그해서 올리는 방법 외에는 없다. 결코 편리한 방법은 아니다. 위에서 어려운 방법이라고 소개한 이유도 그래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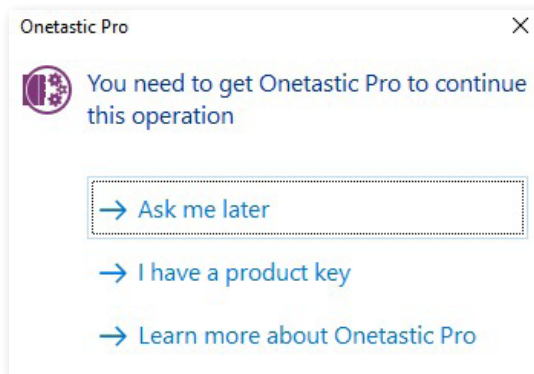
## 쉬운 방법(하지만 비용이 들 수 있음)

다른 방법은 원노트의 추가 기능, 원노트 데스크톱 버전용 원타스틱(One-tastic)을 사용하는 것이다. 원타스틱은 윈도우 스토어 버전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전에도 원타스틱을 소개한 적이 있지만 이 간단한 추가 기능은 데스크톱 원노트 환경에 다양한 맞춤 기능을 더해준다. 이를 위해 매크로라는 원타스틱용 애드온(원타스틱 추가 기능을 위한 애드온이 있음)을 사용한다. 이러한 매크

로는 원타스틱 사용자 커뮤니티에서 만들어지며 원노트 환경을 개선하는 요긴한 방법이다.

원타스틱에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매크로가 유료 사용자용이라는 점이다. 원타스틱 프로는 현재 PC 2대용으로 15달러지만 원타스틱은 종료 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무료 평가 기능을 제공한다. 즉, 무료 평가 기간이 끝나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다. 대신 관건은 매크로 사용이다. 한 두 개의 매크로만, 그것도 가끔 사용한다면 결제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영영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원타스틱 매크로를 많이 사용할 경우 어느 시점이 되면 결제 메시지가 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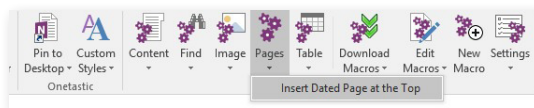
따라서 원타스틱을 사용하려면 15달러를 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원타스틱 애용자라면 그 정도의 비용을 낼 가치는 있을 것이다.



나중에 묻기(Ask me later)를 클릭하면 원타스틱 매크로 무료 평가판을 사용할 수 있다.

시작하려면 원타스틱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한다(위 링크). 설치되면 “Inserted Dated Page at the top”이라는 원타스틱 매크로를 다운로드해서 설치한다.

원타스틱과 매크로 모두 보통 프로그램과 동일한 방식으로 설치된다. 먼저 원노트를 종료하고 설치 파일을 두 번 클릭(원타스틱은 ZIP 폴더로 제공됨)한 다음 지침에 따라 설치한다. 매크로 설치 중에는 프로 버전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다. 일단 나중에 묻기(Ask me later)를 클릭해서 계속 진행해 종료 날짜가 없는 무료 평가 기간을 시작한다.



원노트의 원타스틱 매크로.

모든 요소가 설치되면 원노트에서 새 페이지를 추가할 전자 필기장 섹션을 연다. 그 다음 원노트 리본에서 홈을 클릭하고 맨 오른쪽에서 매크로(Macros)라는 새로운 섹션을 찾는다. 이 섹션에서 페이지(Pages) > 날짜가 지정된 페이지를 맨 위에 삽입(Insert Dated Page at the Top)을 클릭하면 날짜를 제목으로 한 새 페이지가 생성된다. 여기서 제목에 정보를 더 추가할 수도 있다. 다른 원노트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클라우드와 동기화되며 모든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 ITWORLD

# “강의 녹음할 때 필수!” 원노트, 필기 연계 녹음 기능 자세히 알아보기

Ian Paul | PCWorld

**원**노트는 생산성을 향상하는 노트 필기 앱으로 인기가 높다. 그중에서도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쉽게 간과되는 기능이 바로 녹음 기능이다. 음성 녹음 기능은 자칫 평범한 것 같다. PC, 스마트폰, 태블릿 모두 음성 녹음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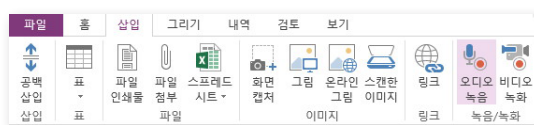
그러나 원노트는 여기에 특별한 한 가지를 더했다. 녹음 과정과 동시에 사용자가 필기한 내역의 시간 로그를 함께 보여주는 기능이다. 즉 필기 내용에서 특정 문단이나 단락을 찾으면 바로 그 시간대에 녹음된 음성 파일로 점프할 수 있다.

필기를 수정하기에도 편리하고, 음성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뒤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무척 유용한 기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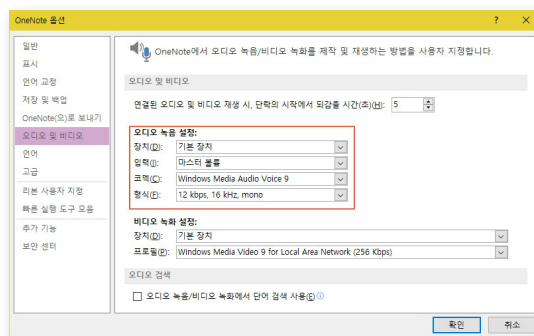
이번 원노트 튜토리얼에서는 윈도우 10과 원노트 2016을 사용했다. 윈도우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원노트 앱은 음성 녹음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 원노트에서 녹음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재생 관련 옵션이 나타나는데, 이때 메뉴바 제일 오른쪽 ‘오디오 및 비디오 설정’ 항목을 클릭한다.



선택한 노트에서 새로운 페이지를 연다. 녹음 기능을 켜야 할 타이밍에 삽입 > 오디오 녹음을 선택한다.



이어 나타나는 팝업 윈도우에서 오디오 코덱, 헤드셋 설정 등 녹음과 관련된 상세한 변경 사항을 저장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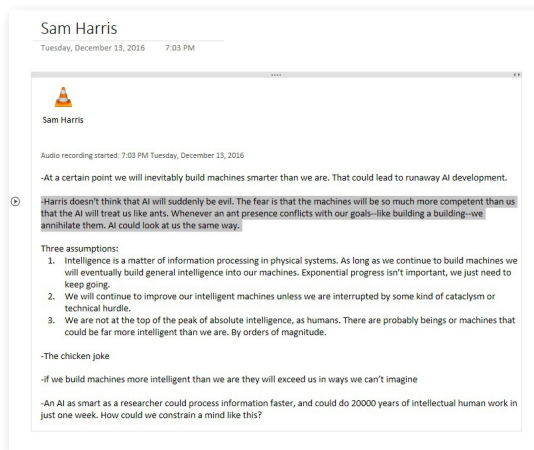
오디오 검색 항목에서는 텍스트 단어로 음성이나 영상 파일을 검색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 오디오 품질이 높아야 하며, 오디오 파일 검색에 몇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음성 언어와 인터페이스 언어가 일치해야 한다.

### 녹음

녹음은 원노트 페이지에 .wma 아이콘으로 나타난다. 파일명은 자동으로 페이지 제목으로 정해진다.

이제 녹음을 진행하면서 원노트 페이지에 메모를 적어보자. 하나의 문단마다 시간 기록이 생긴다. 중요한 부분에는 엔터 키를 눌러서 새 문단으로 노트를 작성하자.

녹음이 끝난 후에는 ‘중지’ 버튼을 누른다. 다른 파일과 마찬가지로 녹음 파일과 노트 파일이 클라우드에 백업된다.



원하는 시점 찾기

노트에 적은 부분을 보면서 그 노트를 작성할 때의 녹음 파일을 같이 들어보고 싶을 때는 해당 문단에 커서를 올린다. 왼쪽에 작은 플레이 버튼 모양이 나타나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문단을 작성했을 시간의 녹음 파일이 재생된다. 기본 설정으로는 사용자가 클릭한 시점보다 5초 빠른 지점부터 재생되는데, 자세한 설정은 ‘오디오 및 비디오 설정’에서 바꿀 수 있다.

녹음 파일을 재생하면, 시간 로그에 따라 해당하는 문단이 자동으로 색상이 변하면서 하이라이트되고, 사용자가 중지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계속 파일이 재생된다.

녹음과 필기는 보통 동시에 이루어진다. 긴 강의나 회의를 녹음하면서 필기할 때, 원노트의 필기 연계 녹음 기능을 앞설 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ITWORLD**